

순천 주민자치 마을 공모

순천시는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읍면동 6개소를 공모한다고 2일 밝혔다.

새로운 주민자치회는 행정과 대등한 관계에서 파트너십을 구축해 실질적인 의사결정권과 책임이 강화된다.

주민자치위원 정원은 기존 25명 이내에서 20~50명으로 늘려 공개추첨으로 선정,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특히 마을계획 수립 및 실행,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역할 수행, 주민총회 개최 등으로 기능이 강화된다.

또한 주민자치회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비 지원과 주민의견 수렴 등 실무 업무 지원을 위한 인력도 보강할 예정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주민자치회의 시범사업으로 인하여 주민의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여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주민자치를 성공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박경식 기자

보성 적재조사 이의 접수

보성군은 다음달 13일까지 봉천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새롭게 경계 결정된 사항에 대해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와 토지의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 지역을 재조사 측량하여 지적공부를 새로 작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2030년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군은 앞서 지난달 14일 보성군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해 봉천1지구 706필지 54만7,551㎡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을 완료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 통지했다.

경계가 결정된 토지는 이의신청이 없으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경계가 확정된다.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는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금을 지급 또는 징수할 예정이다. /동부취재본부=김근중 기자

구독신청 및 기사제보
·본부 061 - 743-4200
·여수 010-8648-1236
·광양 010-3622-9898
·순천 010-2547-7890
·구례 010-5431-4006
·곡성 010-6764-6100
·고흥 010-9151-2828
·보성 010-3601-2060

보성 노인들 상대 '뺏다방' 주의보

선물 등 제공 환심산 후 납골당유치 금품 요구 포교활동 빙자 영업 단속도 못해... 피해 속출

보성 지역 노인들을 대상으로 삼짓 돈을 노리는 일명 '뺏다방'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사법 당국은 처벌할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어 금전적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읍내 법당을 차려놓고 지역 유명인과 연고를 앞세워 선물을 나눠 주며 노인들을 현혹해 납골당 안치비 등 명목으로 금품을 유도하고 있어 강력한 단속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일 보성읍내 노인들 등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월 읍내 매일시장 인근 건물 임대 모 사찰의 임시 법당을 차려놓고 포교활동을 빙자한 방문 판매업을 등록한 뒤 노인들에게 화장지와 계란 등 선물을 나눠주며 환심을 사고 있다.

이들은 주로 '홍보관' '홀소핑' '제향관' 등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몇해 전부터 포교활동을 빙자해 농촌지역 등에서 '뺏다방' 식 영업을 하는 변종업으로 활동하고 있다.

임시 포교원에는 사찰에 등록된 스님

들은 상주하지 않고, 이들 일당이 원장 등으로 행사하며 적극적인 포교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여성 노인들을 대상으로 전복순창에 있는 모 사찰에서 기도를 하면 좋은 일이 생기거나 자식들이 성공한다는 등으로 노인들을 현혹해 납골당 안치 600만원, 위패비 150만원, 해수관음상 건립시주 36만원 등 회원 가입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특히 포교원장은 지역의 유명인과 연고를 앞세워 모 사찰에서 누구라도 소원을 빌면 기도받을 잘 받아 지도자급 인제가 배출된다는 근거 없는 사실을 내세우며 노인들을 유혹해 납골당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실제 보성군 미력면의 경우 30여명이 거주하는 마을에서 8명이 위패 안치를 계약하거나 사후 납골당 안치 회원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식들과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포교원에 자주 놀러간다는 노인 B씨(여·72)는 "포교원에 가면 도래 노인



보성지역 시민단체들이 종교활동을 빙자한 '뺏다방' 추방을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들과 함께 노래, 코미디, 등 여러 프로그램들이 준비 돼 노인들을 즐겁게 해주고 선물도 나눠준다"며 "위패를 모시는 것을 강요는 하지 않아 자주 가고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사법당국은 정상적인 종교 활동에 대해 처벌할 마땅한 근거가 없어 난감해 하고 있다.

관계기관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으나 법망을 피하는 수법이 갈

수록 교묘해져 근절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역 시민단체들도 피해 심각성을 깨닫고 매일 피켓 시위를 하며 사법당국의 단속을 촉구하고 있다.

소비자교육중앙회 보성군지회 선효남 지부장은 "현재까지 약 50여명의 노인들이 위패 안치 및 납골당에 가입해 1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임시 포교원이 철수할 때

까지 노인들의 출입을 자제하자는 방송과 캠페인을 전개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복 순창 모 사찰 주지스님은 "정상적인 포교활동을 뺏다방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며 "본인들이 선택해 저렴한 가격에 위패를 모시는 것은 지역민을 위한 일이다"고 해명했다.

/동부취재본부=김근중 기자

광양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전액 지원 구례 내일 '찾아가는 마을학교' 설명회

2016년 이후 신청자 대상

광양시는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0월 한 달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대상자 모집에 앞서 지난 4월 전남에서는 최초로 한국장학재단과 협약을 맺고 사업을 진행해 왔었다.

지원 대상은 한국장학재단에서 2016년도 이후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 재(휴)학생으로 공고일(10월 1일) 현재 부모와 학생 모두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다만, 임대주택 세입자에 해당하는

학생이 법에 따라 권리확보를 위해 거주지로 전입한 경우, 학교 또는 학교 소재 지방자치단체로 전입해야 고내 장학금 수혜와 기숙사 입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해주고 인정한다.

지원 금액은 2016년도 이후 학자금 대출금의 올해 발생 이자 전액으로 한국장학재단 대출금 상환방식으로 이뤄진다.

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구비해 시청 교육청소년과 또는 읍면동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도 가능하다. 구비 서류로는 10월 1일 이후에 발급된 대학 재(휴)학생증명서, 학생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이며, 관외 거주 학생

의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주민등록등본 및 관련 증빙서류를 함께 첨부 하면 된다. 제출된 서류는 대상자 확인을 거쳐 12월 중 지급되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이자 상환처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박양군 교육청소년과장은 "이번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을 통해 비싼 등록금과 대출 이자 부담으로 마음껏 공부에만 집중할 수 없는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기를 바란다"며 "많은 대상자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정경화 기자

구례군은 오는 4일 오후 구례문화회관에서 전남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와 공동으로 2018년 구례군 '찾아가는 마을학교'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필요성과 방법을 설명하고, 우수사례 발표 등을 통해 마을공동체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마을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고 공동사업을 통해 마을 주민간의 화합과 공동체 회복 등 다양한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

올해 구례군은 전남도 마을공동체 공

모사업을 통해 씨앗단계 1개소(400만원), 새싹단계 1개소(1,000만원)가 선정돼 운영 중에 있다. 군은 내년에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체계적인 운영 및 지원 방법 등의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마을단위 공동체 활동을 복원하고 주민 역량을 강화해 마을 활동가 육성, 다양한 마을공동체 사업을 통해 마을주민이 좀 더 살기 좋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진석 기자

고흥 귀농 도시민 영농 기술 교육

고흥군 도시생활을 접고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 70여명을 대상으로 1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영농정착기술교육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교육생은 서울·경기·울산·제주 등 전국에서 신청서를 제출해 한선발전 도시민으로, 농업경영체등록·축산·버섯재배·야생대 작물·농지취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맞춤형 교육을 받게 된다.

교육을 수료한 자는 귀농·귀촌 지원

사업 지원에 필요한 교육 시간 40시간을 받게 된다. 교육 100시간이 충족되면, 농촌정착 후 귀농농업창업·주택구입지원·농가주택수리비 등 다양한 지원 사업 혜택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고흥군이 전국에서 귀농·귀촌 메카로 급부상하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며 "예비 귀농·귀촌인이 동지를 마련하는데 필요한 원스톱 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진중권 기자

클릭! 고향 소식



여수 화정면 저소득층에 참기름 전달

여수시 화정면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이 직접 재배한 참깨로 저소득층을 위한 참기름을 만들었다.

2일 화정면에 따르면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 10여명은 지난 1일 화정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100만원 상당의 참기름 60병을 전달했다.

협의체는 어르신들의 요청대로 참기름을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동부취재본부=곽재영 기자



구례 '납세자보호관 제도' 교육

구례군은 지난 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납세자보호관제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직무교육은 납세자보호관제도의 추진배경 및 업무와 권한을 설명하고 많은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기 위함이다.

납세자보호관제도는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을 전달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로 구례군은 지난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김진석 기자



광양 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광양시는 지난 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여성가족부에 소속된 김숙진 전문 강사를 초청해 성매매 실태에 대한 심각성과 가정 폭력의 발생 유형, 사례들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김강사는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강화를 통해 성매매 근절 문화 조성과 가정폭력에 대한 우리 사회 인식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동부취재본부=정경화 기자



김철우 보성군수, 문화가족 간담회

보성군은 지난 1일 보성문화원 회의실에서 보성문화원, 문화누리, 문화학교 임원 등 100여명의 문화가족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보성군의 문화·예술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군수의 군정현황과 비전 설명을 시작으로 서편제보성소리의 활성화 방안과 보성의 문화예술 및 군정발전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동부취재본부=김근중 기자